

## 가톨릭 대학의 종교교양교육 현황과 과제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상황을 중심으로 -

임민균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General Religious Education in Songsim Campu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m, Minky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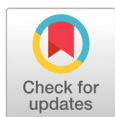
[imminkyun@catholic.ac.kr](mailto:imminkyun@catholic.ac.kr)

### Abstract

Catholic universities, accredited by the Catholic Church, have the general character of holistic education and the ecclesial character of evangelization (of the world). The Catholic universities understand both their identity and their mission: to discover true human values in Jesus Christ,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Jn 14,6), and thereby to realize the highest value of the holistic education, which is Christian human formation. General religious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terializing this identity and mission. In the face of issues around values in pluralist society, problems of human alienation and human instrumentalization, and problems caused by the viewpoints considering faith and reason as opposition to each other, the Catholic universities have to read signs of a rapidly changing era through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they offer. And by reflecting on the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f the signs, the universities must constantly strive to build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ppropriate for this reflection.

Thus, the Songsim campu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ost of all, provides the basis for the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integration of perception’ among disciplines, focusing on Christian human values in the ‘Anthropology’ course. In the ‘Spirituality’ course introducing the true meaning of ‘human-being’ and its extremes in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students find out the reason and validity(legitimacy) of how ‘the conversation between faith and reason’ is possible. And finally, the ‘Sharing of Love’ course offers students with volunteer opportunities, through which the students can practice the knowledge they have learned in ‘Anthropology’ and ‘Spirituality’ courses,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balanced harmony of ‘knowledge’ and ‘practice.’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shortcomings that still remain in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d the suggestions for solving th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fter the course of ‘Spirituality’, it is necessary to open advanced courses on ‘Theological Perspective’ that can deepen the contents of ‘Spirituality’. Second, lay professor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lecturing ‘Spirituality’ course should



### OPEN ACCESS

KJRE. 2020 February, 62(1): 29-46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03>

Received: January 7, 2020

Revised: January 29, 2020

Accepted: February 25,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for fostering their knowledge through continuous and advanced educations and researches on truths of the Christian revel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troduce relative evaluation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that 'Spirituality' course based on theology deals with the area of individual beliefs, and to improve students' attitudes. Fourth, in order to attain the goal of developing Christian character through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the lecture needs to be accompanied with continuous personal encounters and conversa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Fifth,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cultivating the 'Catholic Spirit,' which is pursued by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t is necessary to promote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s among the students of three campuses. Sixth,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eeds to exert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by mutual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religions.

**Keywords:** Catholic University, General Religious Education, Holistic Education, Evangelization, 'Anthropology', 'Spirituality', 'Sharing of Love'

## I. 들어가는 말

제삼천년기를 본격적으로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톨릭교회가 설립한 대학은 1980-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가톨릭 정신'이라는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정신문화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즉 삶의 의미, 삶에서 꼭 성취하고 싶은 목표들, 더 나아가 죽음과 고통의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해 인문학적 성찰보다는 대중매체나 SNS에서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개인적 견해를 더 신뢰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관심에 견줄 만큼 가톨릭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이 인간학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관심을, 그것도 가톨릭 정신에 기초한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기란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자신의 종교진리가 인간 삶의 궁극적 질문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이를 학생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알맞은 언어와 감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려 노력하고, 적용하고, 평가하여, 끊임없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우선적으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가톨릭 대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학적 문제와 과제를 직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써 종교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톨릭대학교가 '가톨릭 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종교교양교육을 통해 실현되도록 구성했는지, 각 종교교양교육 개별 과목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 과목들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면서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가톨릭대학교가 종교교양교육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이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찾고, 그 해결을 위한 미래적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 II. 현대 사회 상황에서의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

2006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은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은 가톨릭 학교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교회가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를 말한다. 곧 교회의 인가와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톨릭

학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가톨릭 학교는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범으로 삼고, 그리스도교의 안목을 지니며, 교회의 선교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적 특성을 지닌다. 이와 동시에 다른 일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유산을 전수하며, 인격을 도야하는 일반적 특성도 지닌다.<sup>2)</sup>

이러한 가톨릭 학교의 특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가톨릭 대학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교회의 인가를 받은 가톨릭 대학은 다른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인교육’에 공헌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인교육을 위하여 가톨릭 대학은 지식, 정보 등의 획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 지식에 상응하는 윤리·문화적 정서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어, 자신의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균형 있는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3)</sup>

가톨릭 대학의 사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톨릭 대학은 궁극적으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상의) 복음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는 ‘교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복음화’가 ‘전인교육’이라는 가톨릭 대학의 ‘일반적 특성’과 동떨어져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에 ‘인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인간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과 일치를 발견한다는 것”<sup>4)</sup>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자신이 대학에서 습득한 여러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영적으로 성찰하여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으로 능동적으로 실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게 될 때 “그리스도교적 인간”<sup>5)</sup>의 형성이라는 전인교육의 가장 최고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정은 물론 지역 사회,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이 뿌리 내린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톨릭 대학은 무엇보다 복음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 심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전인교육’뿐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교육 기관을 ‘가톨릭 대학’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모든 가톨릭 대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8)</sup> 덧붙여 가톨릭 대학의 교회적 특성 덕분에 점차 일선 본당과 다른 사목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대학생들이 가톨릭 대학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의 양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가톨릭교회가 당면한 청년 신앙인 수의 급격한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 선교 사명 수행 과제에 있어서 가톨릭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9)</sup>

다른 그리스도교 계통의 대학들과 함께 가톨릭 대학도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종교 교육을 위해 타 학문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종종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정신에 기초하여 설립된 가톨릭 대학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영감과 빛”<sup>11)</sup>을 반영시켜야 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전개되는 인간학 주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삶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다른 인문학들이 제공할 수 없는 심오한 초월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에서 종교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러므로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톨릭 대학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sup>13)</sup>

### III. 가톨릭 대학 정체성 실현과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면하기 위한 종교교양교육의 중요성

물질만능주의,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글로벌 경제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

빈부의 격차는 물론 국가 간 경제 권력의 편차가 갈수록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그 결과 국가 간 대규모 이민은 물론 취업 비자를 통한 인력 교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심지어 목숨을 건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한 국가 내에서 문화는 물론 인종과 종교 다원화 현상을 심각하게 직면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제기되는 도전은 바로 “가치관의 위기”<sup>14)</sup> 문제이다. 왜냐하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신의 영역이라고 간주되던 ‘진리’ 개념을 극단적으로 개인화, 상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급기야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한 도덕, 윤리 등의 개념들이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그동안 그리스도교 정신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던 오랜 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조건들 중 그저 한 선택사항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가 “인류를 국제 사회로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 획일적 비타협적 원칙과 가치 체제”<sup>15)</sup>로 동일시되어 종교적 다문화의 공존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오인 받기도 한다. 급기야 극단적 다원주의는 국가 내 모든 학교에서 개별 종교의 색채를 완전히 금지하는 “학교(교육)의 중립성”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기에 이르렀다.<sup>16)</sup>

모든 가치를 유용성, 효용성에 두고 개인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인간 소외와 인간 도구화의 문제’ 또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인간학적 개념들의 성찰을 통하여 인간 존재를 교육의 중심에 두는 “교육의 인간화”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sup>17)</sup> 이는 다음과 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언급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의 신비’를 완전히 드러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앙 진리’로 받아들이고,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가톨릭 학교 정신과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 [...]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와 그 사랑의 신비를 알려 주는 바로 그 계시 안에서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인간에게 그 지고의 소명을 밝혀 주신다.”<sup>18)</sup> 다시 말해 가톨릭 대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앙 교리를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교교양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당면한 자아 정체성 및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한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풍부한 공헌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단지 획일적인 교육 구조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학교의 중립성”을 위해 종교 유산의 풍부한 결실을 외면한 채 학교 교육에서 탈종교화를 주장하는 것을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톨릭교회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의 관심을 끄는 언어로 ‘자신 존재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sup>19)</sup> 이 과제를 위해 가톨릭 대학을 필두로 하여 가톨릭교회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관계를 숙고”<sup>20)</sup>한 뒤, 자신이 놓인 다양한 문화들을 그리스도교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긍정·부정적 측면을 식별하여 그리스도 복음이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sup>21)</sup>

또 다른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은 급속도로 진보하는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영향력으로 인해 마치 ‘신앙과 이성’이 조화가 아닌 ‘대립’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과거에 종교가 담당해 오던 자리를 자연과학과 기술이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심지어 세상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간의 반복적인 가설과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뿐더러, 인간 생명의 시작과 마침까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대중에게서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함에 있어서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기성종교들의 막중한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가 자신의 종교 진리에 기초한 인문적·철학적·윤리적 성찰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자연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문제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뒷수습을 하는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과 이성의 관계, 그리스도교 사상과 현대 과학의 관계를 대립적이 아닌 상호 유기적인 건설적 관계라는 사실과 함께 자연과학의 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제시할 수 있는 가톨릭교회의 노력, 특히 가톨릭 대학에서의 인문학적 종교교양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인류 공동체의 책임에 공헌하는 길일 것이다.<sup>22)</sup>

1965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과물로서 반포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가톨릭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복음 선교 사명의 기초위에, 참교육이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sup>23)</sup>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학생들이 “세상의 그리스도화에 이바지하는 습관”<sup>24)</sup>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명을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가톨릭 학교의 고유한 사명은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활력에 넘치는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인격의 계발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새로 난 사람으로서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또 학생들이 점차 습득하여 가는 세계와 인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신앙으로 비추어 주도록 모든 인간 문화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식과 결부시키는 것이다.<sup>25)</sup>

이처럼 가톨릭 학교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 징표를 통찰하는 인간학적 전망을 성찰하여, 이 성찰에 적합한 복음 선포 언어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가톨릭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톨릭 대학에서 종교교양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실로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은 이 교육을 단지 가톨릭 신앙을 방어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의 토대위에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전망을 그리스도교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특히 인간 삶의 최고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인간학적 전망도 살펴볼 뿐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 IV.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 구성과 내용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는 가톨릭 대학이 자신의 교육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의 탐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a) 인식의 통합에 대한 모색, (b) 신앙과 이성간의 대화, (c) 도덕적 관심, 그리고 (d) 신학적 전망이다.<sup>27)</sup>

이러한 가톨릭 대학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가톨릭대학교는 크게 ‘(그리스도교) 인간학’, ‘영성(삶, 영혼 그리고 예수)’, 그리고 ‘사랑 나누기’ 과목으로 종교교양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과목을 통하여 가톨릭대학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 1. 인식의 통합에 대한 모색: ‘인간학’

오늘날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급속한 지적 분야의 발달로 인하여, 갈수록 대학 학계에서 전공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

다. 그 결과 세분화된 전공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새로운 영역의 탐구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자신만의 독보적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할 경우, 모든 학문이 ‘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타학문으로부터 단절되고 심지어 고립화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학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학문이 ‘가톨릭 정신에 기초한 인간의 삶’이라는 가치관을 고려하고, 이를 기초로 인간 삶의 여러 근본적인 주제를 성찰하는 ‘(그리스도교) 인간학’이 제시하는 전망들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그리스도교 진리의 진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내의 개별 학과 공동체들이 일치를 이룰 뿐 아니라 이 가치를 사회와 국가에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것의 의미’를 성찰하는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인간학1과 인간학2로 구분하여 1학년 1, 2학기 필수 기초교양과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인간학’은 가톨릭대학교가 통합 이전 성심여자대학교 시절부터 변함없이 기초 필수 교양교육 과목으로 선정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가톨릭대학교가 가톨릭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통해 ‘인간 존중의 대학’이라는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노력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과 인간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수들의 연구 노력의 결실로 2017년부터 『인간의 이해』라는 교재를 ‘인간학’ 정식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이해』는 크게 2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18개의 물음”<sup>29)</sup>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가는 여정의 형태로 집필되었다. 먼저 제1부 ‘나를 알기’에서는 자신의 ‘주체성’을 알아가는 여정으로써 ‘나’는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고, 인간 존재의 고유한 특성을 규정하는 ‘자유’와 ‘존엄성’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계 맺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제2부에서는 앞서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발견하였다면, 같은 의미에서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소중함을 존중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소중한 존재인 내가 또한 소중한 존재인 타인과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관계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거나 더 나아가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sup>30)</sup> 이렇게 ‘인간학1’을 마감하고, ‘인간학2’는 제3부 ‘더불어 살기’로 시작하면서 소중한 ‘나’와 ‘너’가 모인 사회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선을 추구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 자신은 그 안에서 어떻게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제4부 ‘희망하며 살기’에서는 인간다움의 가장 고차원적 가치를 탐구하며 ‘인간학’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기에서 비록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도 자아실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간 존재가 나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행복, 고통, 죽음, 신의 존재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심화된 성찰의 시간이 마련된다. 결론적으로 이 폭넓은 주제를 고찰하면서 ‘인간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귀중한 기회를 갖게 한다.<sup>31)</sup>

여기에 덧붙여 가톨릭대학교는 매 학기에 한 번씩 ‘인간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빙하여 ‘인간학’과 관련된 주제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강의와 비교하여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코자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2년간의 ‘인간학 특강’ 강사와 주제, 그리고 만족도를 <표 1>에서 정리하였다.

&lt;표 1&gt; ‘인간학 특강’ 설문 조사 결과

| 연도/학기 | 강사                            | 주제                              | 만족도   |
|-------|-------------------------------|---------------------------------|-------|
| 18/1  | 손**<br>(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 소중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 88%   |
| 18/2  | 이**<br>(가톨릭대 교수)              | 더불어 사는 사회와 기업의 새로운 역할           | 78.4% |
|       | 라**<br>(가톨릭대 교수)              |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 혁신               | 78.5% |
|       | 우*** 다**<br>(가톨릭대 교수, 전 신문기자) | 나의 저널리스트 인생 - 젊은이들에게 전언         | 80%   |
|       | 유**<br>(내면**연구소 대표)           | 내 마음을 보는 연습, 우리 모두를 담는 연습       | 78.8% |
|       | 안**<br>(애니메이션 작가)             | something을 생각하는 시간              | 84.8% |
| 19/1  | 원**<br>(가톨릭대 총장)              | 나는 누구인가?                        | 88.6% |
| 19/2  | 이**<br>(공익 변호사, 前 판사)         | 가치를 쫓아가는 삶                      | 87%   |
|       | 하**<br>(가톨릭대 교수)              | “함께 소중한 당신”을 위한 법적 정의에 관한 질문    | 82.6% |
|       | 정**<br>(작가, 문학평론가)            | 내면 아이를 보살피는 자기 돌봄의 심리학          | 80.6% |
|       | 장**<br>(영화 감독)                |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 89%   |
|       | 장**<br>(가톨릭대 교수)              | 각자 도생하는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 커먼즈의 사회경제  | 82%   |
|       | 조**<br>(문화기획자)                | 문화로 도시는 가꾸는 방법 읽는 문화에서 함께하는 문화로 | 81%   |

## 2. 신앙과 이성간의 대화: ‘영성’

가톨릭대학교는 ‘인간학’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적) 신앙과 (자연 과학적) 이성이 대화는 물론 상호 협력이 가능함과 더불어 모든 인간이 초월적 전망에 열려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 뒤, 2학년에 이르러 ‘영성’ 과목을 한 학기동안 이수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인간학’ 내용을 심화시킨다.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단지 종교 영역에 한정하여 다루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교) 인간학’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리스도 계시에 근거한 인간 삶의 근본적 문제들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안목 및 전망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가치(人間價値)들이 완성과 통일을 보는 까닭이다.”<sup>32)</sup>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다움의 진정한 의미와 이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이에 봉사하고자 하는 자연 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연구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속에 그리스도교의 세계관, 인생관, 문화관, 역사관이 자라나게 한다.”<sup>33)</sup> 여기에서 신앙과 이성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유와 타당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성’ 과목은 ‘인간 존중의 대학’을 지향하는 가톨릭대학교 건학이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이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신(神)’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관심밖에 머물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커녕 오히려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종교적 관념과 그것을 조장하는 조직과 구조는 결국 인간에 의해 구성되었을 뿐이고,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와 이론은 오류와 불합리한 면모로 점철되어 실증적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sup>34)</sup>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종교에 대한 무용론이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느님이 마치 인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성’ 과목을 통하여 가톨릭정신이 추구하는 ‘인간 존중’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영성’ 과목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인간 존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해 주는 존재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교가 하느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에 의하면 하느님은 세상 창조 때부터 조건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었고, 급기야는 당신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인간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목표로 살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로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1학년 ‘인간학’에서는 좀 더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과 소중함, 그리고 ‘나’와 ‘너’가 모인 공동체의 자아실현에 대해 고찰했다면, 2학년 ‘영성’에서는 이 ‘인간학’의 가장 뛰어난 구체적 모범으로서 참 하느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알아볼 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35)</sup>

‘영성’의 목표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익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과목의 제목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은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성’과 ‘마음’과 구분되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성’과 ‘마음’이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영혼’은 초월적인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인간 삶의 의미가 단지 현실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느님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영혼의 능력’을 강조한다. 이 ‘영혼의 능력’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삶을 통한 가르침은 단지 현세적인 지혜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로 하여금 사랑 자체이신 초월자 하느님의 시각에서 ‘조건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하여 모든 이로 하여금 하느님 사랑의 전망 안에서 자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방법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가톨릭 대학교 현실 상황에서 ‘가톨릭 정신’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 권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며, 가톨릭 대학이 추구하는 ‘복음화’라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sup>36)</sup>

덧붙여 마지막으로 ‘영성’ 과목의 내용을 풍부하게 결실 맺게 해 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2018년까지 ‘영성’ 수강생들 중에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의무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 실행해 오고 있다. 천주교 신자들도 찾기 힘든 수도원을 직접 방문하여, 무겁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수녀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놀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천주교를 포함한 종교에 대한 어둠과, 침울하며, 항상 거룩함을 요구할 것만 같은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확신은 2019년 1학기 수도원 체험 후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 2>)에 근거한다.

&lt;표 2&gt; ‘수도원 체험’ 설문 조사 결과

| 질 문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
|-----------------------------------------------|--------|--------|--------|-------|--------|
| 수도원 체험을 통해서 내적 성찰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 67.9%  | 28.3%  | 3.8%   |       |        |
| 질 문                                           | 그렇다    | 모르겠다   | 그렇지 않다 |       |        |
|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수도원 체험을 다시 찾을 것 같습니다? | 34.6%  | 42.6%  | 22.8%  |       |        |
| 질 문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난 후, 느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29.6%  | 39.1%  | 23.3%  | 6.0%  | 2.0%   |
| 수도원 체험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28.6%  | 34.5%  | 27.1%  | 9.2%  | 0.6%   |
| 나는 선후배 학생들에게 체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25.9%  | 29.9%  | 30.1%  | 12.7% | 1.4%   |

### 3. 도덕적 관심: ‘사랑나누기’

‘(그리스도교) 인간학’과 이 인간학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성찰하는 ‘영성’만으로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학 주제들과 관련한 가르침을 학생들이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야 비로소 ‘인간학’과 ‘영성’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게 된다. ‘인간학’과 ‘영성’을 통하여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은 ‘지식’과 ‘실천’의 균형 있는 조화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인간학’에서는 인간 존재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 특히 자연과학 연구, 생명 윤리, 환경 파괴, 소외된 이들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삶이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한편, ‘영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의 탁월함 중의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몸소 실천한 분이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운명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서 사랑 실천의 최고 극치를 경험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이렇게 ‘인간학’과 ‘영성’ 과목에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학 주제들과 관련한 가르침을 구체적인 삶에서 봉사를 통하여 ‘실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2학년 과정 중 한 학기동안 ‘사랑나누기’ 과목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인주의를 극복할 것이며, 타인과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고 생활하라는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신앙의 안목으로 발견”<sup>37)</sup>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섬기고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 투신”<sup>38)</sup>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동기 부여의 계기를 갖게 된다.

가톨릭대학교는 ‘사랑나누기’ 과목을 2013년도 2학기부터 필수 교양 과목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舊) 성심여자대학교가 가톨릭대학교에 통합된 1995년부터 학교는 사회봉사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아실현과 공동체 정신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 지식과의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가톨릭대학교의 “진리, 사랑, 봉사”라는 교육이념의 실현과 학교의 인재상인 “인성·지성·영성을 갖춘 윤리적 리더”<sup>39)</sup>의 효과적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 전담기구인 ELP(Ethical Leaders rearing Program) 학부대학을 2012년 3월 1일에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봉사활동을 통한 모든 재학생들의 윤리적 리더십 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 그동안 자율선택과목으로 운영되었던 봉사 프로그램을 ‘베나생(베품·나눔·생명)’이라는 이름의 2학점 기초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 1학기에 ‘베나생’ 과목명이 줄임말로 되어 있어서 전달력이 약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 교과목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과목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랑나누기’로 이름으로 변경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학기 ‘사랑나누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년 동안의 설문 조사 결과 <표 3>에서 과반수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장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귀중한 체험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사랑나누기’ 설문 조사 결과

| 사랑나누기 과목의 장점은 무엇인가? (중복선택 가능) | 2018년 2학기 | 2019년 1학기 |
|-------------------------------|-----------|-----------|
| 재능기부의 기회 제공                   | 24.2%     | 20.4%     |
| 사회공헌의 보람                      | 30%       | 30.6%     |
| 봉사활동의 경험                      | 72.4%     | 67.4%     |
| 봉사에 대한 인식 변화                  | 28.6%     | 19.9%     |
| 성실성, 적극성, 사회참여성 함양에 도움        | 27.2%     | 19.9%     |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사랑나누기’ 과목이 자칫 학점화로 인해 학생들에게 봉사의 참의미와 중요성을 확립적·일방적 방식으로 강요한다는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대학에서는 봉사 활동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비교과 과정들(프란치스코 봉사캠프, 글로벌 재능기부 봉사활동, 재능봉사 캠프 활동, 월드 프렌즈 청년봉사단 활동, 농촌 재능 나눔 활동, 국제봉사활동, 연1회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과 쌀 기부 활동 등)을 운영함과 동시에 봉사활동에 대한 체험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험 나눔 콘테스트를 매해 11월말에 개최하여 재학생들로 하여금 인성을 갖춘 윤리적 리더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나누기’ 과목이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덕적 관심’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가톨릭대학교 교육이념에서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열린 세계인 양성”<sup>40)</sup>을 목표로 하는 ‘봉사’ 이념과 합치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의 미래를 위한 해결 과제 및 전망

‘인간학’, ‘영성’, 그리고 ‘사랑나누기’로 구성된 종교교양교육을 통하여 가톨릭대학교는 가톨릭교회가 바라는 ‘복음화’의 일환으로 가톨릭 정신을 우리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든, 운영적인 면에서든 개선해야 할 점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급속도로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가톨릭대학교가 종교교양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어떠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다.

### 1. ‘신학적 전망’과 관련한 종교교양교육 교과목의 부재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가 제시한 가톨릭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재 가톨릭대학교는 ‘인간학’, ‘영성’, 그리고 ‘사랑나누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위 문헌이 언급한 가톨릭 대학이 포함해야 하는 네 번째 탐구 영역, 즉 ‘(d) 신학적 전망’에 상응하는 과목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일영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2001년 기준으로 가톨릭대학교는 ‘인간학’, ‘그리스도교 개론(현재 ‘영성’에 해당)’과 더불어 이 과목들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3-4학년들을 상대로 ‘종교’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당시 개설되었던 ‘종교’ 영역의 10개 강좌의 면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윤리학’, ‘기도와 삶’, ‘여성과 종교’, ‘현대사회와 교회’, ‘성서와 인간’, ‘성서의 세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교 교리이해’,

‘가톨릭 사상과 인간의 제문제’, 그리고 ‘일상의 신화’.<sup>41)</sup> 이러한 ‘종교’ 영역의 필수 교양 과목은 2004년부터 ‘영성2’라는 과목으로 통합되어 유지되었고, 2013년 2학기부터 학교 교양교육 학점 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영성1’은 ‘영성’으로, ‘영성2’는 폐지하는 대신 ‘사랑나누기’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sup>42)</sup>

‘영성2’ 과목의 목표를 ‘영성’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톨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4학년에서는 ‘영성2’ 시간을 통해 사회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현실 생활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실현시키면서 영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과 함께 숙고하는 영성 교육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에만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대면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sup>43)</sup>

지금까지 살펴본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의 세 가지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학’, ‘영성’, 그리고 ‘사랑나누기’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중심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느님 신비를 이성적으로 성찰·심화하는 ‘신학’은 급속도로 변화되는 ‘구체적으로 만나는 현실 생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영성’을 실현·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거부감 없는 알맞은 언어와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신학’이 타 학문들의 연구로 하여금 가톨릭 정신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 제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진리의 영역 안에서 각 학문들은 자신의 ‘학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이러한 ‘신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대학교에서는 현재 ‘영성’ 과목 이후에 ‘영성’의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관련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교학과도 2019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게 되면서,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부생들을 위한 몇몇 그리스도교 관련 과목만이 개설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 2. 종교교양교육 담당 교수의 양성 문제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 실현을 위해 종교교양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 종교교양교육 과목들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양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가톨릭 정신의 함양이라는 목표 하에 전개되는 ‘인간학’, ‘영성’, 그리고 ‘사랑나누기’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은 “자신들이 바로 가톨릭 학교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주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sup>45)</sup> 그러므로 교원들은 비록 비종교 학문들을 전공했는지라도, 자신의 전공지식을 가톨릭 정신과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대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영성’ 과목을 성직자, 수도자들에 한하여 담당하도록 하다가, 2017년부터 평신도 교수들에게도 이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이전 성직자, 수도자들이 ‘영성’ 과목을 담당하였을 경우,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성직자들을 강사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신부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맡았지만, 본당 사목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에 ‘영성’ 강의까지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너무 명확하여 강의 내용의 통일성 유지는 커녕, 강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의 내용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신도 교수들이 ‘영성’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정이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지향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sup>46)</sup> 동시에 여기에도 피할 수 없는 해결 과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종교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평신도 교수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비종교 영역의 학위를 갖고 있을뿐더러, 모든 교수들이 가톨릭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분야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교 계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심화된 교육과 연구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아무런 사전 교육도 없이 2017년 평신도 교수들도 ‘영성’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비록 학부대학 교수들이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학’, ‘영성’, ‘사랑나누기’의 관계성 안에서 ‘영성’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강의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신학에 문외한이 평신도 교수들이 갖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성직자들만 담당했을 때와 공통적으로 ‘영성’ 교과목 내용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를 선포하는 ‘영성’ 과목을 성직자, 수도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과거에는 ‘영성’ 과목을 담당할만한 가톨릭대학교 성직자, 수도자 전임교원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9년 2학기 기준으로 15명의 성직자와 2명의 수도자가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한 학기 최대 20개 분반이 개설되는 ‘영성’ 과목을 성직자, 수도자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아 보인다. 만약 가톨릭대학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성직자 교원들이 ‘영성’을 담당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적어도 평신도 교수들의 ‘영성’ 과목 지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이고 꾸준한 신학 관련 세미나 등의 양성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양성을 통하여 개인적인 신앙과 구분되는 ‘신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부터 시작하여, ‘인간학’과 ‘사랑나누기’와의 관계 속에서 ‘영성’ 과목의 교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심화 연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야 할 것이다.<sup>47)</sup>

이에 덧붙여 강조해야 할 점은, ‘신학’ 과목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영성’ 과목 담당 교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신학’은 하느님 신비를 이성적으로 다루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신학’은 이론을 가르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바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가르친 내용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살아있는 신앙과 일치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sup>48)</sup>

### 3. ‘영성’ 평가 방식의 문제

가톨릭대학교는 2019년 1학기부터 ‘영성’의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A: 30% 이하, A+B: 70% 이하, C이하: 30% 이상)에서 ‘예외적 상대평가’(A: 30% 이하, B이하: 70% 이상)로 변경하였다.<sup>49)</sup> 이는 2017년 학생들로부터 제기된 ‘영성’ 과목의 상대평가에 대한 부당성 주장에 대해, 학교 교과과정위원회가 가톨릭대학교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교과목으로서 ‘영성’ 과목이 일반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이 아니며, 따라서 인성 교과목 수강결과 C, D, F로 평가하는 것이 취득 학생의 인성 평가와 동일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차후에 취직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내린 결과이다. 학교에서 내린 결정에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비록 심화되지 않는 단계지만 “그리스도교 계시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더 발전시키며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sup>50)</sup>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영성’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예외적 상대평가로의 변경은 자칫 잘못하면 ‘신학’ 자체의 지위를 마치 다른 학문들과 견줄 만큼 이성적이지는 않은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신앙의 문제가 개인의 믿음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잘못된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영성’ 수업을 임하는 태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강의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교양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성’ 과목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다른 교양 과목들과 동등한 성적 평가 제도(2019년 기준으로 ‘상대평가’)로 돌아갈 필요가 있

다고 본다.

#### 4. 종교교양교수와 학생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 대화의 필요성

종교교양교육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그리스도교적 인격 형성의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과의 지속적인 인격적 만남과 통교가 수업과 더불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교양교육이 지향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도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교양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교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육화”<sup>51)</sup>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동기 부여이자 모범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교수와 학생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 안에서 종교교양교육으로 얻게 된 지식과 실천적 증거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결실은 결코 실천을 도외시한 지식의 획득이나 개인적 신앙에 좌우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sup>52)</sup>

이러한 점에서 특히 비가톨릭 학생과의 만남에서 교수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교적 사랑에 기초한 열린 마음과 관심으로 지향된 자세로 대화를 유지해 나갈 때, 이 인간관계에서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발견을 통해 복음화의 씨앗이 싹을 돋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sup>53)</sup>

#### 5. 가톨릭대학교 성심·성신·성의 교정 간의 학문·문화적 교류 증진의 필요성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가톨릭대학교는 단과대학별로 서로 다른 세 교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래 천주교 성직자의 양성과 신학의 저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학대학이 있다. 신학대학은 “다양한 신학 분야를 더욱 깊게 연구하여, 날로 더 깊이 거룩한 계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리스도교 지혜의 자산을 더욱 완전히 밝혀 주며, 갈라진 형제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증진하고, 학문의 진보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sup>54)</sup>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토대로 신학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세 교정 학생들 간의 교류가 증진된다면, 종교교양교육이 추구하는 ‘가톨릭 정신’의 함양이라는 목표가 학생들 간의 친목 도모와 교정 간의 상호 방문을 통한 지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교양교육은 단지 교과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리스도교 복음이 우리나라 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교과 영역 차원의 신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세 교정 간의 교류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 6. 이웃종교와의 상호 협력에 의한 종교교양교육의 질적 향상 노력의 필요성

비록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영성’ 과목에서 그리스도교 외의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성’ 교재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장(章)을 별도로 할애하여 교육하고 있다.<sup>55)</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 깊숙이에는 오랜 전통으로 유지되어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자 규범으로 영향을 미친 불교, 유교, 무교(巫敎) 등의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비해 후발 주자인 가톨릭 신앙은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다른 종교를 배격하고 자신의 신앙 교리의 절대적 우위성을 폐쇄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복음화의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우리나라는 물론 더 나아가 인류 평화와 정의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웃종교들에서 발견되는 긍정적 가치들을 존중함과 동시에 “인간을 근원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sup>56)</sup>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는 ‘종교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일치를 지향 할 의무'가 있다.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톨릭 대학이 그 선봉에 있으며, 특히 가톨릭 신앙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간의 대화를 심화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종교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다.<sup>57)</sup>

그러므로 '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간의 대화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제 종교들이 설립한 대학들에서 각자의 종교적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된 종교교양교육 분야 간 학술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등의 기회가 증대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제기된다. 이 기회들을 통하여 종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지향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진리의 보편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간학' 관련 문제들에 관하여 바람직한 윤리적 방향성을 한 목소리로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VI. 맺는 말

교회는 그 탄생 때부터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자원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여왔다. 문화 다원주의가 충만한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의 '보편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톨릭교회 특히 가톨릭 대학은 현대사회가 그리스도교에 응답을 요구하는 '시대적 징표들(The Signs of the Times)'을 읽어내고, 이에 대한 요청에 적절한 대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교회는 자신의 하느님 계신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유물론과 실용주의, 그리고 기술위주 사회에서 보편적·초월적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는 절대적 상대주의에 편승하려는 대학 학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초한 세속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sup>58)</sup>

이러한 시점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이 강조하는 가톨릭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음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회로서는 복음 선교의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에까지 전해주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 ; 2고린 5,17)라고 한 것과 같이 그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다 넓은 지역에서 혹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逆轉)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까.<sup>59)</sup>

이렇게 복음의 힘으로 인간의 전체적 차원의 변화를 지향하는 '복음화'를 가톨릭 대학 종교교양교육이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진리의 힘을 진심으로 통하게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가톨릭대학교가 종교교양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실재가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었고, [...] 학문과 예술과 문학 그리고 현대 문화에 의해 발전되는 무수한 분야를 촉진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 빛과 희망을 제공해 준다.”<sup>60)</sup>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실천은, 비록 그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하여 변화를 감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소요될 수 있지만, 복음 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존중의 대학'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가 '진리, 사랑, 봉사'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일 것이다.

## 요약

가톨릭교회의 인가를 받은 가톨릭 대학은 전인교육이라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복음화라는 교회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 특성을 드러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이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자신의 종교교양교육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할 점들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종교교양교육의 일환으로 먼저 ‘인간학’ 과목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인간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학문들의 ‘인식의 통합’은 물론 학문 간의 협력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영성’ 과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다움의 진정한 의미와 이의 극치를 보여주어, ‘신앙과 이성간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타당성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사랑 나누기’ 과목은 ‘인간학’과 ‘영성’에서 터득한 앎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식’과 ‘실천’의 균형 있는 조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부족한 점들과 그 해결을 위한 제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 과목 이후에 ‘영성’의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신학적 전망’과 관련한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영성’ 과목을 담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 있는 평신도 교수들에게 그리스도교 진리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심화된 교육과 연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영성’ 과목이 마치 개인의 믿음의 영역을 다룬다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학생들의 수업태도 향상을 위해 ‘영성’ 평가 방식을 다른 교양과목들과 동등한 성적 평가 제도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교교양교육이 그리스도교적 인격 형성이라는 결실을 얻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과의 지속적인 인격적 만남이 수업과 더불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이 추구하는 ‘가톨릭 정신’의 함양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세 교정 학생들 간의 학문·문화적 교류의 증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웃종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종교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어

가톨릭 대학, 종교교양교육, 전인교육, 복음화, ‘인간학’, ‘영성’, ‘사랑 나누기’

##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References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예수 그리스도와 가톨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1』,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2』,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사목』 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사목』 88-90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형제적 인류애 교육」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2018).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3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교육의 현재와 미래: 쇄신의 열정」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54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형제적 인류애 교육」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바오로 6세, 이중홍,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 박일영,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호(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요한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 『가톨릭 신학과 사상』 16호(서울: 신학과사상학회, 1996).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호(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현장」 (2006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승인), <http://www.cbck.or.kr/Board/K7120/13007055?page=2>.

## Footnotes

- 1) 이 글에서 언급되는 ‘가톨릭 대학’은 전체 ‘가톨릭계 대학교’를 의미한다. 이와 구분하여 ‘가톨릭대학교’ 용어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을 지칭하는 의미로 한정한다.
- 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현장」, 1.1항: <http://www.cbck.or.kr/Board/K7120/13007055?page=2>.
- 3) 위의 문헌, 1.2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사목』 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26항 참조.
- 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3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9항.
- 5)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7항.
- 6) 요한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 『가톨릭 신학과 사상』 16호(서울: 신학과사상학회, 1996), 4항 참조.
- 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5항 참조.
- 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앞의 문헌, 1.2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교육의 현재와 미래: 쇄신의 열정」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54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114-116쪽;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9-11항 참조.
- 9) 위의 문헌, 12항 참조.
- 10)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9항 참조.
- 11) 요한바오로 2세, 앞의 문헌, 14항.

- 1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19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사목』 90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56항;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호(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49-50쪽 참조.
- 13) 위의 글, 62쪽 참조.
- 1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1항.
- 15)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형제적 인류애 교육」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11항.
- 1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10항.
- 1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형제적 인류애 교육」, 8항 참조.
- 1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22항.
- 19)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3항 참조.
- 20)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사목』 88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20항.
- 2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9항; 요한바오로 2세, 앞의 문헌, 6. 44항 참조.
- 2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형제적 인류애 교육」, 6. 21항; 요한바오로 2세, 앞의 문헌, 7. 46항 참조.
- 2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1항.
- 24) 위의 문헌, 2항.
- 25) 위의 문헌, 8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사목』 89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38항.
- 2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9-41항 참조.
- 27) 요한바오로 2세, 앞의 문헌, 15항.
- 28) 위의 문헌, 16. 33항; 최준규, 앞의 글, 50쪽 참조.
- 29)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1』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6쪽.
- 30)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2』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19쪽 참조.
- 31)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1』, 6-7쪽 참조.
- 3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5항.
- 33)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14항.
- 34)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2』, 223-224쪽.
- 35)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0항 참조.
- 36)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예수 그리스도와 가톨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4. 19-22쪽 참조.
- 3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5항.
- 38) 같은 항목.
- 39) <https://hakbu.catholic.ac.kr/hakbu/about02.html> 참조.
- 40) <https://www.catholic.ac.kr/www/about11.html> 참조.
- 41) 박일영,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87-88쪽 참조.

- 42) [https://www.catholic.ac.kr/www/academinc3\\_23.html](https://www.catholic.ac.kr/www/academinc3_23.html) 참조.
- 4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앞의 책, 5쪽.
- 4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 59항; 요한바오로2세, 앞의 문헌, 19-20. 29항 참조.
- 4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육의 중대성」, 8항.
- 4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6항 참조.
- 4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60. 65항 참조.
- 48)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3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28-32항; 최준규, 앞의 글, 53쪽 참조.
- 49) <http://rule.catholic.ac.kr:8080/lmxsrv/main/main.srv> 참조.
- 50) 요한바오로 2세, 앞의 문헌, 29항.
- 5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31항.
- 52) 위의 문헌, 21. 33항 참조.
- 53)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55항 참조.
- 5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육의 중대성」, 11항 참조.
- 5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앞의 책, 35-55쪽 참조.
- 56) 위의 책, 53쪽.
- 5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형제적 인류애 교육」, 13항; 요한바오로 2세, 앞의 문헌, 47항 참조.
- 58)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10-12항 참조.
- 59) 바오로 6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18-19항.
- 60) 요한바오로 2세, 「1989년 1월 13일, 교황청 문화위원에게 행한 연설」, 2항. (요한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결론에서 재인용.)